

# 꿈 + 도전 + 열정 = 감동

## '감동의 드라마' 뒤로 한채 '작별'



장애인들의 꿈과 도전의 무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지난 18일 오후 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지난 열흘간 전 세계에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를 뒤로 하고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총 36명의 선수가 출전한 대한민국은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전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냈다. 패럴림픽 참가 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한국은 핀란드,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16위에 올랐다.

이에 본보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평창패럴림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 인간승리

지난 17일 오후 신의현 선수가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중거리 7.5km 경기에서 22분28초40을 기록해 금메달을 거머쥔 가운데 태극기를 들고 승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달려라



지난 16일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15km 입식 경기에서 권상현이 설원을 질주하고 있다.

## "우린 '오벤저스'"



지난 16일 강릉시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휠체어컬링 준결승전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휠체어컬링 동메달 결정전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서순석, 차재관이 논의를 하고 있다.



## 질주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정승환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 위로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4x2.5km 오픈계주를 마친 권상현이 눈물짓자 이정민이 위로해주고 있다.

## 언덕썰이야



지난 17일 오후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중거리 7.5km 경기에서 언덕 구간을 힘겹게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를 관람한 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 오뎅이처럼

지난 16일 오후 최석민 선수가 강원 정선군 정선 알펜인 경기장에서 열린 장애인 스노보드 밴드 슬라롬 남자 무릎 아래의 하지장애(SB-L12) 마지막 3차 시기에 출전해 슬로포를 내려 오다 넘어져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